



꼬꼬닭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 에티오피아의 양계산업 -



김 종 대 농학박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우리는 TV에서 아프리카 하면 넓은 초원에서 사자가 사냥하는 모습 혹은 누우떼가 강을 건너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나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프로로 아프리카 인구중 약 40%인 3억명의 절대빈곤층이 질병과 기아로 고통을 하며 많은 어린이가 죽어야만 하는 대륙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사자에게는 그 많은 먹이들이 왜 사람들에게는 없어 매일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누우떼는 왜 먹지를 앓고 사람들은 기아로 죽어야만 하는지 의문으로 남기도 한다.

여기서 우리가 혹시 나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잘못 생각하는 것(아프리카가 그저 우리의 경상도나 전라도 정도의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예로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나라 크기의 땅이 5개는 들어가야 하는 빅토리아호수는 아프리카 대륙의 아주 작은 일부가 되고 우리가 TV를 통해 보는 동물의 왕국이 촬영되었던 마사이마라 국립공원은 세렝게티 공원의 극히 일부 밖에 되지 못하는 거대한 대륙이다. 지난번 2010 월드컵이 개최된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이집트도, 그리고 과거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도와준 에티오피아도 아프리카에 속한 나라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아프리카는 21세기와 19세기가 공존하는 대륙이라고 한다. 나이로비시를 보더라도 거대한 빌딩과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는 대형 마트가 있는 시내 한켠에는 키베라라는 세계 빈민촌의 대명사인 마을이 또아리고 있다.

필자는 약 2년간 아프리카에 체류할 기회가 있었고 이때에 에티오피아의 농업현황을 살펴볼

기회가 있어 이때 보고 느낀 바를 적어보고자 한다.

1. 에티오피아의 축산

에티오피아의 박물관에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루시라 불리는 원시인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으며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유대나라를 방문한 시바의 여왕으로도 널리 알려진 역사가 오랜 나라이며, 특히 마라톤에 강한 나라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전에 참전을 하여 우리를 도와준 동맹국으로 잘 알려진 나라이나 지금은 기아라는 단어를 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로 알려질 만큼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중 하나이다.

토지는 넓지만 경작을 할 만한 경작지는 매우 적으며 인구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다음으로 많은 국가이다. 1974년 왕정이 무너지고 공산국가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는 급격히 황폐해졌으며 주변국가와 달리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없어 외국의 관심도 적은 국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나라를 황폐속에서도 그나마 지켜준 것은 깊은 종교심과 오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일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농업에 종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국가적으로도 식량의 자급자족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곡류의 생산량은 민주화 이후 14% 이상의 성장을 보였으나 축산업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국민성(깊은 종교심)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대부분의 국민은 에티오피아정교를 믿으며 이들은 1년에 금육기간이 약 200일로 이 기간 동안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아프리카내에서 가장 많은 가축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의 60%가 축산에 관여하고 있을 정도로 축산은 중요한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축산은 초목지대에서는 중요한 식량급원이며 비료의 공급처로도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으며 현금대용으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재산형성에 가장 중요한 물품이기도 하다.

2. 에티오피아의 양계산업

에티오피아의 양계산업을 보면 1950년대에는 약 8,500만수를 사육했으나 그 수가 감소하여 2005년도에는 3,200만수로 64%가 감소했다가 점차 증가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현재 약 35~40백만수의 닭이 사육되고 있으나 이중 단 2% 정도만이 개량종으로 대부분은 재래종을 사육하는 것으로 생산성이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왕정시대인 1959년에는 최신기술을 도입한 7개의 종축장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순계를 활용하여 종계를 생산함으로써 양계산업의 발전을 기대했으나 현재는 단지 12개의 대형양계장에서만이 개량종을 사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의 농업생산자료를 보면 계란은

36,000~40,000톤이 생산되고 닭고기는 47,000~48,000톤 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국민 1인당 소비량은 계란이 0.14kg, 닭고기는 0.12kg로 추정한다.

에티오피아에서 닭고기는 축제기간 혹은 신년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자가 남자에게 닭고기를 대접하면 청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등 닭고기 소비 기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에티오피아 음식인 Doro Wot에는 가운데 계란을 하나 올려놓는데 이는 가장 큰 어른이 먹는 것으로 손님에게 이를 대접함으로 손님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등 계란도 귀한 음식이 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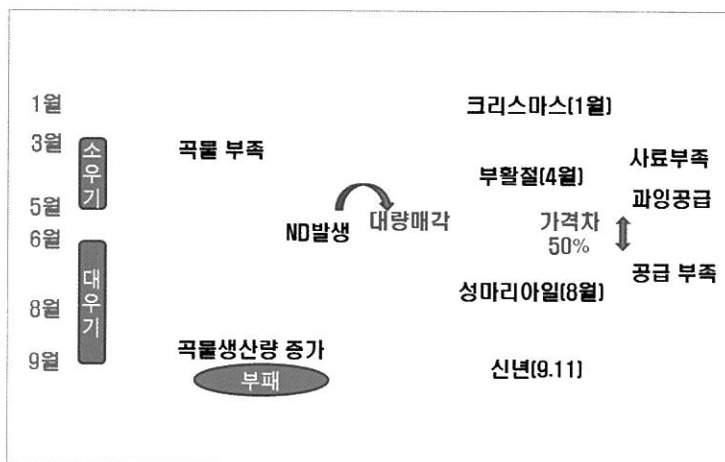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양계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육되는 닭의 대부분이 재래종으로 그 생산성이 낮은 이유도 있으나 사료급원의 원활하지 못한 공급과 질병문제 그리고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더 큰 문제로 생각한다.

에티오피아는 2번의 우기가 있는데 6월부터 9월의 대우기를 지나면서 곡물의 생산량은 증가하게 되어 사료급원이 풍부해지나 다음 우기시작인 3월이 되면 곡물의 부족을 겪게 되고 소우기가 끝나는 5월이 지나면서 ND의 발생이 시작된다.

한편 닭고기의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로는 에티오피아의 새해인 9월 11일과 에티오피아의 크리스마스가 있는 1월, 부활절이 들어있는 4월, 성마리아축일이 들어있는 8월을 들 수가 있다. 즉 사료급원이 풍부해지는 9월 11일 새해에는 판매할 정도로 자란 닭이 없고 생산된 곡물은 보관 시설이 빈약하여 부패가 생기기 시작하여 12월경에는 이미 사료급원으로서의 곡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며 곡물의 부족은 3월까지 지속이 됨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4월에는 사료비의 급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는 형태로 전환이 되어 생산비 상승 혹은 사료의 부족을 겪게 되고 소우기가 끝나는 5월이 되면 매년 반복되는 ND 발생을 우려하여 대량으로 매각이 되어 가격은 급락을 하게 된다.

급감된 사육수수는 8월에는 성마리아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하나 대량매각의 후유증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소비자 가격은 2배 정도로 치솟게 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대해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에티오피아의 양계장

3. 농가소득원으로서의 양계산업의 중요성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티오피아에서의 양계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러나 양계산업은 소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으며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농업의 한 분야로 알려져 있어 UN의 새천년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 MDG)에서 부녀자를 위한 자구노력 및 어린아이들의 노동력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권장되는 산업이다.

닭의 특성은 부산물을 활용하여 적은 수를 사육할 수 있으며 매일 계란을 생산함으로써 가족의 단백질 급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남은 산물은 판매함으로써 꾸준히 소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공이 쉬워 손쉽게 소비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접하기 힘든 부녀자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며, 비록 적지만 계란의 판매 및 닭고기 판매를 통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재원이 됨으로

일반 집에서 급할 때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NGO에서는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병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병아리를 제공하고 빈곤 가정에서는 이를 키워 판매함으로써 적은 돈이지만 수입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병아리가 비록 미약하지만 적은 seed money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가난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적은 외세의 침입이나 질병이 아니라 자신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마음일 것이다. 이러한 자포자기한 사람에게 병아리를 키우는 것은 하나의 희망프로젝트가 된다.

부활절에 계란을 선물하는 것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널리 알려진 전통으로 생명의 존엄을 이야기한다고 하나 에티오피아에서의 병아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삶의 희망을 주는 중요한 매체가 될 것이다.

한국전에서 피로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에티오피아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희망의 병아리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에티오피아에서 양계는 꿈나무에 풍성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젖줄이다. 